

“사실상 문 닫으라는 말”... 초강수 격상에 자영업자 ‘절망’

단체손님 타깃 고깃집 등 ‘직격탄’ 술집 등 배달 어려운 업종 ‘한숨’ “오후 5시에 오픈이라 의미없어”

골프장 대책 마련, 응대에 ‘패닉’ 성수기 앞둔 펜션업체도 ‘초비상’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은 저녁은 앞으로 2주간 사실상 ‘셧다운’ 된다. 카페와 식당 등의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허용하지만,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내러지면서 지인들과의 모임이 거의 불가능해진 탓이다. 이처럼 전례없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에 1년이 넘는 시간을 힘겹게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다. <관련기사 3면>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사적인 모임이 허용

된다. 직계 가족이라도 한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백신 접종자도 예외를 주지 않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다.

이번 거리두기 최고 단계 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은 또 한번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단체 모임이 주를 이루던 고

깃집, 대형주점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양재동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카페, 와인바처럼 연인들이 찾는 곳은 타격이 덜하겠지만, 우리처럼 단체 손님을 주로 받는 식당들은 6시 이후 손님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 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남동에서 수제맥주집을 운영하는 강모씨 역시 “오후 5시에 문을 여는데 6시부터 2인 이상이 집합금지면 문을 여는 의미가 없다”며 “우리는 배달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업종이라 점심 장사라도 시작해야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30대가 많이 찾는 카페와 식당들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초동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는 신모씨는 “젊은 커플들이 주요 고객층이기 때문에 최근 방역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며 “확산세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지금 코로나19 확산의 주축이 되고 있는 20·30대 연인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골프장들도 거리두기 최고 단계 시행에 혼란스러운 주말을 보냈다. 실외 골프장 역시 오후 6시 이후에

는 4인 한팀이 모임 경우 규정 위반이 되는 탓이다.

경기도 파주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문의 전화에 응대하느라 정신없는 주말을 보냈다”며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이용을 모두 오후 6시에 마감하기로 결정하고, 오후 2시 이후 예약팀은 9홀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가철을 앞두고 여름 성수기를 준비하던 숙박업소들 역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경기도 가평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가족 단위 고객들을 대상으로 4~6인실을 운영하는 펜션들은 지금 예약 취소와 환불 문의에 바쁜 상황”이라며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한달 매출이 1년 매출을 좌우하는데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면 다들 한 해 장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ooul.co.kr

軍, ‘예비군 훈련’ 연기·취소 재조정 고심

지난달 예비군 훈련 재개 지침 내려 코로나 확산세에 수정 불가피 전망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추진되면서 군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10일 군 내 거리두기 개편 관련 부대관리지침을 전국 각지 부대에 하달했고, 방역지침을 강화했다

지난 7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5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다음날인 8일에는 20여명이 추가 확진돼,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선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재개하기로 했

던 ‘동원예비군 훈련’과 ‘향방예비군 훈련’ 등의 지침도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군 훈련 지침 하달됐지만, 신속한 수정 필요

육군은 지난달 4일 ‘후반기 예비군 훈련 지침(정정)’을 ‘국가동원체계시스템’을 통해 하달했다. 이 지침에는 동원예비군 훈련은 2박3일 합숙이 아닌 1일 8시간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하고, ‘향방 작계훈련’ 등도 오는 9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군 정보통들은 “군 당국이 지침 하달 당시 코로나19 확산 변화

를 예측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 확진자 감소추이와 현역과 예비역 장병들의 백신 접종 증가 등을 고려해 약 18개월 만에 예비군 훈련을 재개한다는 지침을 내렸지만, 현재로서는 수정이 불가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 전역)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은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등 핵심 전력을 제외하고는 취소해야 한다”면서 “우리 군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은 장병들이 현 상황에서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주고 있는 덕분”이

라고 말했다.

지난 8일 후반기 예비군 훈련 지침(정정)과 관련된 기사들의 질의에 부응한 국방부 대변인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지침이 예비군 교육편성 일정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국방부 동원국이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예비군 전력의 90% 이상을 관리하고 교육해야 하는 육군 동원참모부의 입장에서는 국방부 동원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이 절실한 시점이다. 예비군 훈련 재개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감이 육군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비군 훈련재개 어려워...비상근간부예비군 소집은 필요

지난 6일 올해 예비군훈련이 재개될 것이라는 본지의 보도가 나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예비군훈련 재개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해처럼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을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할 지 관심이 모인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의 경우 동원예비군 훈련통제와 교육을 정예화한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육군과 해군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은 방역지침에 따라 분산된 부대소집 등을 통해 평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육군의 경우 부대소집 일정이 부득이하게 자주 변경됐다. 때문에 올해 동원훈련이 정상적으로 재개되기는 힘들다는 것이 예비전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형철 기자 captim@

온·오프라인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200여개 흥삼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물과 웹카다로그를 통해 남녀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25년 역사 브레인TV 방송국 소유 핫터그룹
 (주)햇터라이프 T. 070-7204-4515

쌍용차, 기업회생 위해 평택공장 ‘정리’

공장 관내 이전하고 신공장 건설 인수부담 완화... M&A 속도 기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쌍용자동차가 ‘평택공장’을 매각하고 이전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쌍용차의 인수합병(M&A)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쌍용차는 친환경차 중심의 사업전환을 위해 평택시와 평택공장 이전 및 신공장 건설을 위한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지난 9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정장선 평택시장, 정용원 쌍용차 법정부장, 정일권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쌍용차 평택공장 이전·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쌍용차가 평택공장의 관내 이전 및 신공장 건설을 통해 친환경차로의 사업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인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79년 준공한 경기도 평택시 칠곡동의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는 85만㎡

(26만여평) 규모로 장부가액만 6814억 원에 달한다. 쌍용차와 평택시는 기존 부지를 향후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장부지인 만큼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실제 가치는 이보다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공장은 평택의 다른 부지에 들어선다. 공장이전에 따른 생산중단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현 부지 매각과 함께 신공장 건설 작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수입차 브랜드들의 물류센터가 들어서 있는 평택자유무역지역을 후보지로 주목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의 지원으로 평택공장 부지의 개발가치도 상승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결국 쌍용차 인수에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인수 후보들이 공익채권과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부담스러워 한 만큼 평택공장 매각 대금을 활용할 경우 인수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양성운 기자 ysw@